

# 인문학 위기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영 석 |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지난해 인문학 위기를 둘러싼 인문대학 학장들의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 선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이다. 오늘날은 오히려 인문정신을 더 절실하게 추구하는 시대로 인문대학 학장들의 성명은 현실의 변화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인문학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대학이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인문학 전공학과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인문학 고유의 학문 특성을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인문학은 대학 교양교육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인문학자의 본령이 무엇인지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인문학자들은 인류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해야 한다. 결국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연구자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때 진정한 극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재정립  
포부

## I. 들어가며

지난해 가을 이후 대학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인문학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고려대 문과대학 교수들의 인문학 위기 선언에 뒤이어, 주요대학 인문대학장들이 다시 인문학 위기와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언론과 방송에서 한동안 주요 의제로 다루기도 했다. 집단견망증이 심한 사회라서 지금은 관심 밖으로 사라졌지만, 그 당시 신문과 방송이 큰 관심을 나타낸 것도 이 사회가 인문학을 그만큼 중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인문학 위기를 둘러싼 논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상업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거론한 후에, 이 같은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정신이 더욱더 중요하며 정부가 인문학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자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체로 의례적인 언사에 지나지 않는다. 주장의 핵심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다.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면서도 교수들의 선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이다. 인문학의 위기라기보다는 대학에 터를 잡은 인문학자들의 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아마도 인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들의 호소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육성책을 내놓고 또 연구지원을 확대했다. 실제로 학술진흥재단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인문학 지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위기 선언은 계속된다. 사회 일각의 냉소적인 분위기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 II. 인문학과 인문정신

과연 인문학은 위기인가? 위기를 부르짖는 인문학자들은 인문정신과 인문학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 그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와 상업주의 영향 아래 젊은 세대 사이에 인문정신이 실종되었다. 이 시대의 혼란을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인문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상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파고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인문정신이 실종되었다는 주장은 별로 근거가 없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안정된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만 눈길을 돌린다고 해서 인문정신이 쇠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고등교육 인구가 적었던 시기와 그 수요를 상회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의 성향을 단선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불안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취업과 경제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과는 달리, 인문정신에 대한 깊은 관심은 어디서나 증폭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탐색하는 출판물이 관심을 끌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듯이 다른 문명과 문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세계를 깊이 다룬 문헌과 영상자료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역사 분야만 하더라도 서점가에서는 학술서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서적들이 꾸준히 진열된다. 이 책들 가운데에는 대하역사소설같은 형식을 취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사를 쉽게 풀어 쓰거나 또는 전통역사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소한 소재들, 이를테면 결혼, 전쟁, 사랑, 성병에서부터 설탕, 포크, 연필, 소

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밀접하면서도 간과해 온 일상생활의 소재를 서술의 전면에 내세운다.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음에도 인문서적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문학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것 같다. 아마 조선시대 이래 고전과 문필을 중시한 전통 때문일 것이다.

시대의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성과 전통과 역사에 더 자주 눈길을 돌린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과학기술문명이 낳은 지구환경의 위기와 기계적 원리의 지배, 달리 말해 근대성에 대한 깊은 불신이 오히려 인간의 내면과 역사의 본질을 탐사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된다. 인문정신이란 바로 이 같은 탐사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오늘날이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인문정신을 더 절실하게 추구하는 시대인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키워드는 '문화'라고들 한다. 우리의 문화와 다른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 또한 인문정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만일 이러한 시대적인 추세에서 대학의 인문학자들이 국외자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독자층을 염두에 둔 글쓰기에 게을렀거나 또는 텍스트에서 이미지와 영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디지털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정신과 가치를 경시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개탄한 인문대학 학장들의 성명은 현실을 잘못 진단했거나 또는 현실의 변화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시대의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성과 전통과 역사에 더 자주 눈길을 돌린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과학기술문명이 낳은 지구환경의 위기와 기계적 원리의 지배, 달리 말해 근대성에 대한 깊은 불신이 오히려 인간의 내면과 역사의 본질을 탐사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된다. 인문정신이란 바로 이 같은 탐사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이야말로 오히려 인문정신을 더 절실하게 추구하는 시대인 것이다.

### III. 인문학과 구조조정과 인문정신에 바탕을 둔 교육의 필요성

물론 나 자신도 대학에 몸담고 있는 인문학 연구자로서 오늘날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대학 인문학 전공이 처한 현실은 분명 위기의 징후를 보여준다. 1990년대 말 이후 학부제 시행과 더불어 인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저성장과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더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제 대학의 인문학 연구자는 곳곳에서 '잉여

교수'로 내몰리고 있다. 그 동안 호경기를 구가해 온 몇몇 주요대학들에서도 대학원 교육의 붕괴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불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른지 오래다. 대학 안에서 인문학은 학생들의 무관심과 이에 따른 학문 재생산의 위기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문학과 졸업생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문학이 어느 정도 존

중받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어느 면에서는 그 사회의 전통적인 분위기나 또는 교육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인문학 전공이 인기가 높다. 이는 영국 대학교육의 전통이 원래 교양교육에서 출발한 데다가, 사회에서도 인문학 전공자들은 식견과 교양이 풍부하여 직무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학부에서 기초학문을, 전문대학원에서 직업과 관련된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제도 덕분에 적어도 학부과정에서 만큼은 인문학 교과목들이

중시되고 있다.

근래 국·사립을 막론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특히 인문학 관련학과들이 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도 법인으로 바뀐 후 상당수의 지방대학들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을 겪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대학 교수사회에서 인문학 연구자들의 퇴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인문학 연구자들의 대학 진입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사실 2차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인문학 전공자들이 대학 교수로 봉직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문학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을 기회가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시점이 1980년대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학과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사회 분위기 아래서 우리 대학의 인문학 전공학과는 그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개설되어 있다. 왜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 교육당국의 무원칙적인 정원정책과 투자를 회피하는 사립대학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더욱더 심화되지 않았나 싶다. 인문학 전공학과는 강의실과 교수와 분필만 갖추면 된다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인문학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앞으로도 그 같은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양과 전공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논란이 많지만, 많은 대학인들이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교과내용을 혁신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동과 급속한 지식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체계에 개방적일 수 있는 기초소양이다. 인문학적 지식과 사유야말로 이러한 소양을 함양하는 데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아무리 개인주의와 물신숭배가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젊은이들 또한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좀 더 나은 인간의 삶과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희구한다. 더 나은 인간의 삶과 이상사회란 무엇인가? 인문정신은 이러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해답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오늘날의 대학생 또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은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언어와 몸짓으로 이 문제를 추구하고 대안을 탐색할 뿐이다. 그들의 언어와 몸짓을 이해하는 것은 인문학 연구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구시대의 언어로 그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그들의 언어를 내세워 학생들에게 다가서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은 대학이 현대사회의 추세에 적응해 나갈수록 오히려 인문정신에 바탕을 둔 지식과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리라고 단언한다. 대학교육에서 인문학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교양교육에서 인문학 강좌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대학 인문학 연구자들의 책임이다. 새로운 변화의 추세를 외면했거나 젊은이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또는 젊은이들의 언어로 대화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서로 교차하고 갈등을 빚는 이 시대에 인문학은 그 다양한 것들을 소통시킬 책임이 있다. 인문정신이란 바로 차이를 넘은 소통에서 비롯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능력은 바로 이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렇기에 인문학은 갈수록 자신만의 장

벽을 쌓아가는 여러 학문영역의 담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여 세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이야말로 이 시대 교육의 화두이며, 인문학 연구자들은 그 화두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담지자이다. 적어도 인문학의 위기를 언급하려면, 연구자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되짚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인문대학장협의회 성명은 이러한 반성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더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 선언은 대학과 인문학 전공교수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정부는 시급히 인문학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문학국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인문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시급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인문대학장단의 정기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만으로 인문학이 발전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문정신이 고양되리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인문학자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한다. 제도나 지원이 인문정신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문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자기단련과 헌신만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세계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교차하고 갈등을 빚는 이 시대에 인문학은 그 다양한 것들을 소통시킬 책임이 있다. 인문정신이란 바로 차이를 넘은 소통에서 비롯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능력은 바로 이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렇기에 인문학은 갈수록 자신만의 장벽을 쌓아가는 여러 학문영역의 담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여 세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화되었지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물론 인문학에도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분야가 있다. 그렇더라도 인문학은 과학적 탐구와 논증보다는 상상력과 해석과 미적 완결성이 더 중시되는 학문이다. 인문학이 스스로를 '인문과학'으로 규정해 제도화된 다른 학문 분야를 모방하면 할수록 고유의 인문정신은 사라진다. 사회과학이 정책과 연결되고 자연과학과 공학은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인문학은 이 같은 가시적인 결과보다는 좀 더 바람직하고 더 나은 인간의 삶과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과 연결된다. 이 같은 인문학 고

유의 학문 특성을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구현하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인문학은 대학 교양교육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히려 더 많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대학 교양교육의 담지자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 특히 다른 학문분야를 끌어들여 이들과 서로 소통하는 교과목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인문학의 교양교육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주제보다는 현재의 관심사를 인문학적 사유를 거쳐 성찰하고 되짚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문학, 철학, 역사학을 포함한 인문학 일반은 모름지기 현재의 문제와 떨어져서는 호소력을 가질 수 없다. 대체로 인문학자들은 학문적 객관성과 엄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의 문제에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그 현재는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통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문학자의 본령이 무엇인지 재

#### IV. 인문학 위기의 극복 방안

인문학은 대학이라는 연구기관 안에서 제도

정립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에서 인문학 연구자들의 활동은 논문 작성에 집중된다. 더욱이 논문의 양적 지표로 교수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평가하려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논문제일주의는 생생한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인문학자들의 본령은 글쓰기에 있다. 논문으로 객관적 사실을 찾아내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설명을 보통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일이야말로 인문학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인문학이 ‘계몽의 수사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날에도 진실이다.

여기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그동안 인문학은 과학적 방법을 받아들여 스스로 ‘인문과학’을 자처함으로써 고유의 전문 언어를 지어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런 분위기 아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란 불가능하다. 인문학은 원래 과학 이상의 것이며, 예부터 주위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가진 장르였다. 인문학은 자신의 고유한 전문 언어를 만들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인문학의 글쓰기는 오랫동안 수사적 전통 아래 이루어졌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가 조지 트리벨리언은 역사가들에게 필요한 작업은 연구(과학), 상상(해석), 문학(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역사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일반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 여기에 뛰어난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고 또 연구 결과들을 광범위한 독자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면서도 유려하게 서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인문학자들의 끝없는 노력과 자기연마가 필요하다. 어쩌면 이것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처음부터 짚어진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문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장인적 정신이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자들은 인류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해야 한다. 물론 저명한 인문학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왔지만,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전보다 더 자주 이런 문제들을 거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작업은 결국 ‘근대성’ 비판과 직접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근대성은 시장을 통한 자본 축적(자본주의), 자연의 변형 및 그 지배(산업화), 사회성원에 대한 통제와 조절(국가와 감시체제), 폭력적인 억압수단의 발전(군사화) 등으로 표현된다. 오늘날 지구문명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지난 수세기에 걸친 근대화의 결과가 스스로 그 한계를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인문학자들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혼란과 제반 문제들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데에서 자기 학문의 존립 근거를 찾아야 한다.

결국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연구자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때 진정한 극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문학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아비투스(habitus)를 청산하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나갈 때,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좀 더 따뜻해질 것이다. 그럴 경우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인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 그 지원이 좀 더 바람직한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인문정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때 학문 재생산의 위기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

#### 이영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사의 유혹』, 『역사가가 그린 근대의 풍경』, 『다시 돌아본 자본의 시대』, 역서로는 『자연과학을 모르는 역사는 왜 근대를 말할 수 없는가』, 『역사학을 위한 변론』 등이 있다.